

2025년 대한지리학회 남계논문상 수상 논문 선정 요지

2025년 남계논문상 수상 논문으로 김성훈 박사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한국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조정 -베트남 진출 초국적기업을 사례로-』 가 선정되었습니다.

대한지리학회 남계논문상 규정에 의거해 대한지리학회 부회장 김혜숙 선임연구위원, 학술이사 김수정 교수, 총무이사 정해용 교수, 국제이사 김숙진 교수 및 학회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박종철 교수, 최광희 교수, 한민 연구원의 7인으로 ‘2025년 남계논문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22일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김성훈 박사의 학위논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 논문은 한국 전자산업의 베트남 진출을 사례로 글로벌 경제 공간에서 전개되는 변화의 원인과 역학에 대해 검토하고, 초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과정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진화를 유도해 왔다는 사실에 기초해 공간경제 변화의 동학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초국적 기업을 사례로 적실성 있는 연구 대상 선정,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연구 방법의 적용,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지리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체계성, 논리성이 뛰어나다고 사료됩니다. 현대 경제 공간의 구조적 특성 변화와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이는 사례 지역에 대한 풍부한 연구 결과를 생산하는 동시에 글로벌 가치사슬을 둘러싼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범위를 기업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기업 내부와 기업 외부로 확장하는 시도를 통해 지경학적 맥락에서 국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연구가 투자유치국의 산업 입지만을 다루고 있는 데에 반해 투자유치국의 공간경제 변화뿐만 아니라 투자모국의 공간경제 변화 양상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국내 지역 산업 정책과 해외직접투자 전략 조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여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적을 인정하여 심사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김성훈의 논문 『한국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조정 -베트남 진출 초국적기업을 사례로-』를 제21회 대한지리학회 남계논문상 수상 논문으로 선정합니다.

2025년 5월 22일
남계논문상 심사위원회